



News Letter

Subject: **20120802 - 'Abel Women UN' Inauguration Assembly**

12-08-02



'Abel Women UN' Inauguration Assembly

- 5.27 by the Heavenly Calendar (July 17)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Abel Women UN is to cross the barriers of war and conflict, race and religion, nationality and language; to heal affronts with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love and magnanimity and to build a peaceful world.

You can confirm the detail contents at <http://www.tongilgyo.org>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s Twitter** ▶ [lovintp](#)



July 12, Hoon Dok Hae: Did Satan exist originally? If it is so, it means that we can fall when we are in Kingdom of Heaven. Therefore, Satan did not exist originally. We can know that human beings have fallen into an incomplete state. Throughout the course of restoration, we can believe in God, separate ourselves from Satan and realize God's love. Aju.

July 16, Hoon Dok Hae: When Jesus was on the cross, he did not blame the people who intended to kill him. Jesus sacrificed Himself. Therefore, God never distanced Himself from Jesus. We should separate ourselves from Satan individually. Also, when fallen people repent, we can embrace and forgive them.

July 17, Hoon Dok Hae: I have an experience in which I remembered not being able to speak while on the way to giving my sermon. That is one reason why we need a lot of practice and preparation as we prepare our speeches. In that case, we can keep our composure and maintain our creativity. Our facial expression should also be in harmony with our content.

 **Dr. Kook Jin Moon, 'Strong Korea?' Breakfast Seminar Special Lecture hosted by Segye Times**

- July 18, 2012 @ 7:30 am

This day, the ‘Strong Korea?’ breakfast seminar was held in the Emerald Room of the Lotte Hotel in Sogong-Dong, hosted by the Segye Times. Dr. Kook Jin Moon and 100 VIPs from Samsung Group, Han Hwa Group, Lotte Group, DongYang Group, Posco, the Bank of Korea, IBK and the Bankers Association participated in this event.





🔥 Dr. Kook Jin Moon gave a special lecture with the title of 'Strong Korea?' at the Police Academy

- July 16, 2012 @ 9 am

Before his lecture, Dr. Kook Jin Moon met and talked with Cheon Ho Seo, who is the dean of the Police Academy. After that, he gave a special lecture titled 'Strong Korea?' to 100 inspector-section chiefs. Inspector-section chiefs from all over the country are in the position of middle manager and are responsible for on-site practice-based work. They responded to Dr. Moon's lecture fervently and emphatically. Towards the end of his lecture, Dr. Moon expressed his wish for Korea to be a strong country. The audience responded with an enthusiastic round of applause and the special lecture concluded successfully.



Dr. Kook Jin Moon's meeting with Cheon Ho Seo, Dean of the Police Academy



Opening of Café KONA QUEENS in SamCheong dong, Jongno Gu

- July 17th, 2012

On July 17, Café KONA QUEENS, launched by IHwa, opened in SamCheong dong, Jongno Gu. Many VIPs, including Dr. Kook Jin Moon, visited the Café and offered congratulations on its opening.

Kona Coffee

Kona Coffee is grown and cultivated in Hawaii, the only location in the U.S. where coffee can be grown. Its official brand name is Hawaiian Kona. It is one of 3 major coffee brands together with Jamaica Blue Mountain and Yemen Mocha. You can buy Hawaiian Kona coffee by the class at Café KONA QUEENS in SamCheong dong.





Continental Directors' Meeting

- July 18, 2012 @ 4 pm

On 5.29 by the Heavenly Calendar (July 18th) the Continental Directors' meeting was held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ChukSaJang Yeon Ah Lee, Dr. Kook Jin Moon and Continental Directors at the 13th floor Assembly Hall in the DoWon Building. The Master of Ceremonies was Jun Ho Seok, Vice President of the World Mission Center. After the European Continental Director Yong Chul Song's prayer, in place of True Parents,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and ChukSaJang Yeon Ah Lee presented former Continental Directors with Certificates of Contribution. After this ceremony, the meeting for the victory of Foundation Day commenced.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and Dr. Kook Jin Moon both gave a message during the meeting.



Presentation of Certificates of Contribution: (from left) Former Continental Director Jae Hee Lee, Hee Sun Ji and Sang Jin Lee



Presentation of Written Appointment: (from left) New Continental Director Gi Hoon Kim, Katsumi Otsuka, Yoong Taek Yang

As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mentioned ‘Freedom Society’ on which Dr. Kook Jin Moon gave a lecture, he emphasized that the Tongil Group chairman’s lecture content is a brilliant analogy in expressing the fundamentals of the Divine Principle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Dr. Kook Jin Moon said that reflecting on history, the period of democracy was short and eventually a dictator took away freedom, as was repeated throughout history. Dr. Moon asserted that according to True Parents’ words, the Abel side should be strong and have the power by itself to protect the freedoms of its people and to realize peace.



Speech: (from left) International President Hyung Jin Moon, Dr. Kook Jin Moon

Media Coverage

* Segye Times: Let us overcome the limitation of UN and peace to be realized.



“유엔 한계 극복 영적 평화 이룩하자”

아벨여성유엔 창설대회

‘아벨여성유엔 창설대회’가 16일 경기 가평군 정심평화웰드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아벨여성유엔 창설대회는 문선명 통일교 총재·한학자 세계평화여성연합 총재 내외와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을 비롯해 세계 130개국에서 온 여성 지도자, 평화운동 지도자, 여성연합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아벨유

엔’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의 장자 가인과 차자 아벨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기존 유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작된 초종교운동이다.

1945년 10월 인류 평화를 위해 탄생한 유엔은 현재 강대국들의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곳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기존 유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비정부기구(NGO)로 모습을 드러낸 아벨유엔은 세계평화뿐 아니



라 영적인 평화까지 이룩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위 사진은 문 총재가 아벨여성유엔 창설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아래 사진은 문 총재 내외가 아벨여성유엔 창설을 선포하는 타종을 한 뒤 축하하는 모습이다. 가평=이재문 기자



한국인 통일그룹 회장 김경환(가운데)이 주최한 '강한 대한민국? 조찬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통일그룹)

“힘 있어야 평화 지켜... 강한 지도자가 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주요 참석자였던 대통령 대표변론사 최기락(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유석은(가운데)은 최기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통일그룹)

본지 주최 '강한 대한민국' 조찬 세미나

음식상에선 음해 전행이 여음이 불어났다. 김경환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 '강한 대한민국' 조찬 세미나에서 "강한 지도자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나라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국간 통일그룹 회장 김경환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세계계 모러니언 리더 등 참석

“안보상황 지켜가야 기회 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주요 참석자였던 최기락

김경환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 '강한 대한민국' 조찬 세미나에서 "강한 지도자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나라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분국간 통일그룹 회장 김경환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세계계 모러니언 리더 등 참석

“안보상황 지켜가야 기회 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주요 참석자였던 최기락

김경환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 '강한 대한민국' 조찬 세미나에서 "강한 지도자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나라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분국간 통일그룹 회장 김경환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세계계 모러니언 리더 등 참석

“안보상황 지켜가야 기회 있다”

김 회장은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독립된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주요 참석자였던 최기락

김경환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 '강한 대한민국' 조찬 세미나에서 "강한 지도자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나라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참석자였던 대통령 대표변론사 최기락(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유석은(가운데)은 최기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통일그룹)

* Sports World: Become one with soccer for establishing world peace

축구로 하나되는 세계평화

피스컵 출전팀 함부르크·호로닝언·선덜랜드 선수단 입국








2012 PEACE CUP Suwon

19 July - 22 July, 2012



2012 PEACE CUP Suwon
D-1

피스컵에 참가하는 해외 구단이 모두 환영을 받으며 본격적인 스타투를 열었다.

2012 피스컵 우승 대회에 출전한 함부르크(독일), 호로닝언(네덜란드), 선덜랜드(잉글랜드)가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차례로 입국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구단은 독일 함부르크가 이날 오전 5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현재를 차를 갖춘 보르스텐 볼크 대의 함부르크 감독은 "피스컵의 11년은 한국에 오게 돼 기쁘게 축하"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팀보다 일찍 도착한 만큼 귀환하게 마냥 오후 예정된 훈련을 위해 링크 감독 및 선수단은 서둘러 훈련을 시작했다.

1시간 후인 오전 7시 30분에 도착한 팀은 역시 환영을 받고 있는 선덜랜드. 유로축구 레프트비치에 "피스컵을 환영한다. 팀의 상임인 부흥에 피스컵이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팀의 상임인 부흥에 피스컵이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팀의 상임인 부흥에 피스컵이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제 남은 두 팀은 호로닝언과 선덜랜드이다. 호로닝언 감독은 "이번 대회에는 처음으로 감독과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수들이 참가한다"고 말했다. 선덜랜드 감독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영광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영광이다."

피스컵을 통해 세계 각국 선수들이 한데 어울리며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더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총출동해야 할 것"이라고 일부의 말도 전했다.

호로닝언 감독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영광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영광이다."

호로닝언 감독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영광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영광이다."

호로닝언 감독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영광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영광이다."

관련기사 2·3면

* Segye Times: Peace Cup's Opening, Participating Teams are entering into Korea one after another




피스컵 내일 개막-참가팀 속속 입국

독일 함부르크가 1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구단은 독일 함부르크가 이날 오전 5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현재를 차를 갖춘 보르스텐 볼크 대의 함부르크 감독은 "피스컵의 11년은 한국에 오게 돼 기쁘게 축하"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팀보다 일찍 도착한 만큼 귀환하게 마냥 오후 예정된 훈련을 위해 링크 감독 및 선수단은 서둘러 훈련을 시작했다.

* Sports World: Peace Cup 4 coaches one voice, Goal is the winner



피스컵 4인4색 사령탑 한목소리... “목표 우승”

“우승이다.”

2012 피스컵 수원에 참가할 4개팀이 모두 한국에 모였다. 헝가리(FCV)와 영국, 호르노잉(네덜란드), 선덜랜드(잉글랜드) 등 3개국 선수단이 모두 17일 영안공원을 통해 입국을 완료했다. 각 팀의 자취를 하고 있는 수원은 모두 언어는 달랐지만 결론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피스컵 우승”이었다.

우승에 대한 제일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은 네덜란드로 도착한 당일 오후 5시 선덜랜드 감독이었다. 이날 감독은 영국 인터넷에서 “피스컵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이다. 하나는 당면의 우승이고, 다른 하나는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오기 전 피스컵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많이 해왔다”며 “그 성과가 이번 주말 좋은 결과로 나올 것”이라며 “2009년 마스폰베리의 감

독으로 피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팀은 배우었지만 모드시 우승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팀의 주축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 팀에 젊은 선수들이 많다. 그들이 잘 해낼 것”이라고 유망주들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7월 17일 인천공항을 통과한 포르스텐 핁크(45) 함부르크 감독은 “우리는 이번 피스컵 토너먼트에 우승을 하려고 왔다. 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지켜봐 달라”고 자신감 있게 총사령관 언했다. 2011년 10월 지휘봉을 잡은 핁크 감독은 지난 시즌 강등권 위기를 겪으며 부진했고, 시즌 막판 승용인의 열광적으로 15위를 기록했다. 핁크 감독은 그 과정에서 팀 리빌딩을 시도했고, 이번 피스컵에서 유망주들을 총가동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일과한 세 팀 중 유일하게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외국 훈련을 하며 우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두 번째로 도착한 로버트 마스킨드 네덜란드 감독도 우승 의지를 드러낸 것은 마찬가지였다. 마스킨드 감독은 이날 “다가올 시즌에 대비한 프리시즌 중엔 한국을 찾았다”며 “당연히 모두가 기대고 있다. 목표는 우승”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르노잉이 어떤 팀인지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중에서 여유있게 세 팀을 기다리고 있던 선대웅 성남 감독 역시 “목표는 우승이다. 피스컵에 들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신 감독은 “현재 리그에서 팀이 주춤하고 있는데 피스컵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을 노리겠다”며 “우승을 따낸 팀 분위기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도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승 전전포고령을 했다. 인천공항-관영문까지

* Newsis: 2012 Peace Cup SuWon!

2012 피스컵 수원 파이팅!

NEWSis() 기사입력 2012-07-18 20:43



【서울=뉴시스】 박동욱 기자 = 박상권(왼쪽 일곱번째) 피스컵 조직위원회 위원장과 염태영(왼쪽 아홉번째) 수원시장을 비롯한 각 구단 관계자 및 감독 선수들이 18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2 피스컵 수원' 전야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피스컵조직위원회 제공)

[포토] '2012 피스컵 수원 개막합니다'

최종수정 2012.07.18 19:02 기사입력 2012.07.18 19:02

T + - ㉞ ㉟ ㊚ ㊛

㉜ ㉝ ㉞



골프스포츠부
정재훈 기자



[수원=아시아경제 정재훈 기자] '2012 피스컵 수원'의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가진 공식기자회견에서 각 팀 감독과 선수들이 유니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Joong Bu Times, Not coming back empty handed!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성남FC, 선덜랜드(잉글랜드), 함부르크SV(독일), 호로닝안(네덜란드)의 감독과 대표선수들이 2012년 피스컵 리셉션에서 우승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홍원석수습기자 hws@joongbu.com



“한국에 큰 빚을은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2012피스컵 대회에 참가하는 성남FC, 선덜랜드(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함부르크SV(독일), 분데스리가, 호로닝안(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선수와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12 피스컵 수원 리셉션

성남·선덜랜드·함부르크·호로닝안 감독·선수 한자리에 모여 우승 자신 오늘 성남 VS 선덜랜드 개막전

성남의 흥청은 18일 수원 리아다프라 자호장에서 열린 2012피스컵 수원 리셉

션에서 “상대가 모두 강팀이지만 끝대 각 나라로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함부르크의 손흥민은 “미안하지만 우리팀은 우승컵을 들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맞받아했고 호로닝안의 최현준도 “우리팀은 약팀이 아니다. 우리팀이 우승컵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갈 것이다”고 강한 화풍을 풍소케 했다.

성남의 신태용 감독은 “선덜랜드는 미친 오닐감독의 부임과 함께 성적이 올랐고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특히 모든 선수들이 뛰어난 실력을 갖춘 강팀이다”며 “하지만 이번 대회서는 우리가 우승하겠다”고 말했다고, 선덜랜드의 매빈 오닐 감독은 “당님은 지난해 컵 대회를 우승한 강팀이지만 우리의 조직력을 믿어줘 우승컵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함부르크의 보스톤 뎡 감독도 “한국

까지 그냥 온것이 아니다. 피스컵에서 다양한 시련을 겪을 생각이고 우승은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호로닝안의 로버트 마스카르 감독 또한 “피스컵을 가지고 돌아갈 땐은 우리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피스컵은 19일 오후 7시 치러지는 성남과 선덜랜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3일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홍원석수습기자 hws@joongbu.com



2012 피스컵 수원 참가 감독들(왼쪽부터 신태용 성남일화·마틴 오닐 선덜랜드·로버트 마스카트 FC 호로닝언·토르스텐 핑크 함부르크 SV)이 우승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피스컵 수원’ 우승컵 양보못해!

신태용 성남감독 등 각팀 감독들 강한 의지 내비쳐



2012 피스컵 수원대회에 참가하는 각팀 감독들이 우승에 대한 강한 투지를 드러냈다.

18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진행된 피스컵 기자회견에는 신태용 성남일화 감독, 마틴 오닐 선덜랜드(잉글랜드) 감독, 토르스텐 핑크 함부르크SV(독일) 감독, 로버트 마스카트 호로닝언(네덜란드) 감독이 참석했다.

19일 오후 7시30분 선덜랜드 전을 앞두고 있는 신태용 성남 감독은 “선덜랜드가 마틴 오닐 감독이 부임하면서 성적이 좋아졌다.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고 평가한 후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이니 만큼 축구팬들에게 반드시 우승을 선물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마틴 오닐 선덜랜드 감독도 “성남이 우리팀에 비해 체력적으로 강하지만, 조직력을 앞세워 우리팀이 이길 것”이라며 승리를 확신했다.

토르스텐 핑크 함부르크 감독에게는 팀내 유망주로 부상하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로버트 마스카트 호로닝언 감독은 시즌 시작 전 출전하는 피스컵을 통해 팀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각팀 선수 대표로 참석한 홍철(성남)과 손흥민(함부르크), 석현준(호로닝언)은 재치있는 입담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홍철은 손흥민과 석현준에게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좋다”면서도 “무사히 돌아갈 수 없다”고 선전포고를 했고, 손흥민과 석현준은 “무사히 돌아갈 뿐 아니라 우승컵도 가져가겠다”고 말해 기자회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피스컵에 출전하는 각팀 감독들이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수원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우승트로피를 앞에 두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태용 성남일화 감독, 마틴 오닐 선덜랜드 감독, 로버트 마스칸트 흐로닝언 감독, 토르스텐 핑크 함부르크 감독. 피스컵 조직위원회 제공

성남, 피스컵 첫 우승 대시

오늘 선덜랜드와 개막전

한국축구가 만든 유일한 국제 클럽 대항전인 '2012 피스컵 수원'이 19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선덜랜드(잉글랜드)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2003년 시작된 피스컵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예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지만 한국선수가 포함된 명문클럽만 출전해 대회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K리그를 대표해 출전하는 성남이 선덜랜드와 맞붙고, 손흥민의 소속팀 함부르크(독일)와 석현준이 뛰는 흐로닝언(네덜란드)이 20일 오후 7

시 30분 격돌한다.

승자는 22일 오후 7시 30분 우승컵을 다투고, 이에 앞서 오후 4시 30분 진행된 팀끼리 3·4위전을 치른다. 우승팀은 150만 달러(약 16억 8600만원)의 상금을 가져간다.

성남은 올해 첫 우승에 도전한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FA컵에서 조기 탈락하고 K리그에서도 하위권(10위)에 처지는 등 극심한 부진에 빠진 성남은 피스컵을 반전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신태용 감독은 "2009년에도 피스컵 이후 상승세를 타서 K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력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진영 기자 asal@kyunghyang.com



함부르크SV 손흥민 피스컵위해 입국

“큰 대회 나에겐 영광”

존재감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최선 다할 것

“피스컵처럼 큰 대회에 참석해 영광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의 손흥민(20)이 2012 피스컵 수원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팀 동료들과 함께 17일 새벽 5시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8월12일 월드컵 최종예선 레베논전 이후 한달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손흥민의 표정은 밝았다. 토르스텐 핑크감독과 레네 아틀리 등 팀 동료는 손흥민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공항에 나온 팬들과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에 아리송할 한숨을 내뿜었다. 손흥민은 입국 후 인터뷰에서 “피스컵처럼 큰 대회에 참석해 영광이다. 이런 야경 많은 밤이 마중을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과 함께 “먼 시간을 고향에서 온 만큼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해 프리시즌 총 9경기에 출전해 16골을 기록했지만 정규 시즌에는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은 올라덴 체르리히와 파울로 게타로가 팀을 떠나며 팀내 입지가 수직상승했다. 손흥민에게 이번 피스컵은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토니먼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내 팀 내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손흥민은 “현재 몸 상태는 매우 좋다. 지난 시즌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지만 난 아직 어리고 경험도 더 쌓아야 한다. 감독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라며 이번 피스컵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또한, 손흥민은 지난 13일 훈련을 하던 도중 팀 동료 솔로보단 라이코비치(23·세르비아)와 다툼을 벌인 ‘종무지’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 축구선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함부르크SV는 20일 오후 7시30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석현준이 골인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흐로닝언과 피스컵 결승 진출을 놓고 겨룬다. 인천공항=전경우 기자 kwjun@sportsworld.com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의 손흥민(20)이 17일 피스컵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인천에 도착했다. 인천공항=김두홍 기자

